

## 社會의 病的 現象 (五)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 人類는 社會生活을 免치 못하겠다 (續)

엇지 하여 人이 社會의 產物이나 함은 明白한 것입니다. 社會生活에는 一定한 規模가 必要합니다. 幼兒가 生하여 外界와 接觸할 새, 家庭規模의 影響을 受할 새, 自己 同輩와 戲遊할 새, 學校에서 敎訓을 受할 새, 自己 職業生活에 活動할 새, 自己 國家 政治制度의 統治를 受할 새, 自己 宗教를 信仰할 새 生時로부터 死席까지 社會의 規模가 精神的 人格을 맨드러 주는 것은 事實입니다.

此精神的 人格이 善惡是非를 區別하고 此精神的 人格의 刺戟된 瞬間의 吾人의 感情을 良心이라 합니다. 然則 人類가 아닌 他動物이 되기 前에는 社會的 生活을 免치 못하겠습시다. 우리 人類에게는 生存한다 함은 社會的 生活을 한다 함과 同意義라 하겠습시다. 그러면 古의 聖人이 非時면 去하라 함은 事實上 去치 못할 社會生活을 去하라 함도 아니겠고, 性質上 離去키 不能한 社會를 去하라 함도 아니겠습시다. 그러나 自己가 一次 負擔한 對社會 責任을 去하고 入山함도 不可하겠습시다. 時의 好不好를 不關하고 人의 自然의 生活世界가 社會인즉 社會가 理想生活에 不適하면, 此를 適合하게 改造코자 盡力함이 各人의 義務오 責任일 뿐 아니라, 健全한 精神을 有하는 者의 自然의 要求라 하겠습시다.

然則 自己의 淸高한 德性의 命令으로 社會的 卽 精神的 生活을 棄하라는 君子의 棄官入山이 事實上 不可能하여, 結局 短時間에 다시 塵世로 歸하게 됨도 可히 理解할 것입니다.

### 社會의 病은 精神病이다

만일 全體가 構成 個物의 互相關係의 作用에 依하여 成立된다 하면, 만일 各 構成 個物의 固有한 性質로부터 生하는 關係의 作用을 精神的이라 하고

全體는 物質인 構成 個物에 對하여 精神體라 하면, 만일 極端 唯物論者가 觀하는 一物塊에 不過하는 人類도 그 互相關係의 作用을 因하여 一精神體 卽 社會를 形成하는 同時에 그 精神的 人格의 動作이 된다 하면, 만일 此精神의 人格의 動作이 社會의 主要되는 生活이라 하면, 그러면 社會의 病的 生活도 精神的이라 하겠습니다.

勿論 社會도 우리 肉體의 病과 近似한 것을 經驗한다 함은 一定한 意義 範圍 內에서 말할 수 잇스니, 卽 社會를 構成하는 人類의 肉體 間에 流行하는 病 卽 歐洲語의 『社會病』이라 하는 것과 갓흔 것임니다. 此는 醫學上 問題로 國家에서도 衛生政策으로 管理하는 것임니다. 그러나 如斯한 病은 純全히 物質的으로 說明될 썬 아니라 社會 그것의 官能的 生活에는 何等 影響을 與치 안이 합니다. 또 社會에 遊食民이 만타든지 犯罪者가 盛함은 우리 身體에 寄生蟲이 盛하여 全身의 健康을 害하는 것 갓습니다. 其外에 農業組織에 缺點이 잇거나 其他 生産業組織, 科學界, 美術界, 道德界, 或 人生觀에까지라도 辯難이 잇습은 社會의 一部分의 病이라 하겠습니다. 카알 마악스[칼 막스]와 갓흔 이는 經濟的 病을 社會의 主要된 病이라 하고, 心理的 病을 그 部屬的 現象이라 하겠지만은, 우리는 此와 正反對로 此等 部分的 病은 社會의 官能的 病에 附屬된 現象이라 하고, 此에 官能이라 함은 精神的 官能인즉 그 病도 精神的이라 합니다. 近世 醫學界에서도 一新 傾向이 잇스니, 모든 病源은 外界에서 突入하는 細菌에만 在치 아니하고 身體의 官能에도 在한다 하는 것임니다. 그썬 안이라 病源의 主要된 것은 身體의 官能에 在하다 합니다. 外界에서 突入하는 細菌은 健康體에도 勿論 突入하나, 此身體의 官能은 完全하여 對抗力이 強함으로 病을 不致하는 事가 多하다 하며, 만일 그 身體의 官能인 精神의 衝突이 有하면 此로 因하여 身體가 弱하고 細菌을 對抗치 못함으로 致病한다 합니다. 그런 고로 法國 作家 『퀴에』 갓흔 이는 全혀 暗示自信法을 治療法으로 使用하여 到處에 成功한다 합니다.

此點에 對하여는 뢰썰레 教授(예나大學)도 『아쇼프』教授(프라이베익[프라이부르크]大學)의 編纂한 『病理解剖學』에 贊同합니다. 그림으로 우리는 이에 社會의 不完全한 組織的 官能을 因하여 生하는 病的 現象을 觀察하려 합니다.

### 社會의 病은 客觀標準이 無하다

余는 病理學者가 안입니다. 그러나 『피어호[파르호]』의 說을 據한즉 모든 病狀은 細胞의 變常狀態에 在하다 합니다. 細胞의 變常狀態는 三個 現象이 잇스니, 곳 越處的 變常, 越時的 變常, 越量的 變常이라 합니다. 細胞가 그

不適한 處所에서 或 非常한 時期에 或 過渡로 變常됨은 다 病的 現象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引用하여 社會의 細胞인 各人이 非常한 處에서 非常한 時에 非常한 量으로 動作함은 社會의 病的 現象이라 하겠습니다. 全國 人民의 意思를 代表하지 못하는 政黨이 政府를 組織하게 되거나, 不時的 革命이 이어나거나 過度의 同盟罷工이 日々 不絶하면 그 社會는 病들었다 하겠습니다.